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남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남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진행

완도 해양치유·자연자원 체험 등

전남도는 29일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체험토록 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전기관 임직원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치러졌다.

2007년부터 시작된 남도문화탐방은 지금까지 총 427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해 전남 곳곳의 숨은 명소를 둘러봤다.

이번 탐방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심신치유와 휴식을 주제로 한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수미스트테라피, 해조류 거품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팔라스포에서 수업을 이용한 마사지와 수중운동, 명상풀에서 편안한 물속 환경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기후치유센터에서 노르딕워킹을 통해 완도 명사십리 해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문화치유센터에서 공예, 향기, 요리



전남도는 29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체험을 통해 창의적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내 유일의 난대숲인 완도수목원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남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완도타워에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전사관을 관람하며 완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전남도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더 많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전남의 매력을 체험하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남도문화탐방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의 소통의 장이자, 전남의 관광·문화자원을 알리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전남도민의 일원으로 안전적으로 정착하도록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청원농항터에서 창농기업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네트워킹 & 해커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남농기원, 창농기업 ‘네트워킹 & 해커톤’ 개최

창농기업 간 팀빌딩...비즈니스 협력 기반 마련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청원농항터 운에서 창농기업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네트워킹 & 해커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농기업 간 새로운 협업 모델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해커톤(Hackathon)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박관수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창농기업 간 실질적 교류와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농기업의 성장과 성공적인 창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퍼실리테이션 네트워킹 데이(4월),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6월), 스케일업 네트워킹 데이(8월), 해커톤 네트워킹 데이(10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은 29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울산 지역에 재해구호기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에 긴급 인적지원을 실시했다.

광주환경공단, 특별재난지역 긴급지원 펼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울산 지역에 재해구호기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에 긴급 인적지원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전남 소속 직원 10명을 포함한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등 120명과 함께 산불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화재 잔재물과 폐기물을 수거하며 재난 현장의 신속한 정비와 지역사회 회복에 기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시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과 공동으로 성금 600만 원을 모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했으며, 이 중 공단이 모금한 100만 원은 전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 5명을 전남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해 12월 29일과 1월 1일 양일간 구호물품 운반, 인원 통제 및 안내 등 긴급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한 민관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나주농협, 효행상 시상·장학금 전달

나주농협이 효행상을 시상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나주농협은 최근 열린 운영공개회의에서 효행에 귀감이 되는 A씨에게 효행상을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

나주농협은 매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받

아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농협 이용고 배당금 액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허영우 조합장은 “효행상과 장학금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도 만복운흥(萬福雲興)의 기운으로 조합원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농협은 최근 효행에 귀감이 되는 지역민에게 효행상을 수여하고,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PEOPLE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장성군에 후원금 2000만원 전달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필 케어(Fill Care) 후원금 2000만원을 장성군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필 케어’는 생계(생활비, 주거비), 돌봄(의료비, 간병비), 미래(교육비, 심리상담 등) 분야 가운데 필요한 영역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34세 이하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청소년 10명에게 각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월드비전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군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이항범 기자 lh66699@gwangnam.co.kr



나주경찰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스마트태그 보급 협약 체결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년 늘어나는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스마트태그’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마트 태그는 위치 추적 장치다. 보호자의 휴대 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됐으며 실종 이력이 있는 치매 노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나주시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나주경찰청은 스마트태그를 통해 지난달 17일 집을 나간 치매 노인을 찾아 가족에 인계하면서 효과를 확인,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석진 나주경찰서장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상 초기 실종이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스마트태그 보급으로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본사방문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장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 50년생 뜻이 맞지 않아 부담스러운 날
- 62년생 현재의 모습을 존중하라
- 74년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 86년생 계획하던 일을 실천에 옮기라
- 9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53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라
- 65년생 도움으로 뜻밖의 소원이 이룬다
- 77년생 갈등이 우러 있으니 양보가 화목
- 89년생 미진함을 보충하는 기쁨이 있는 날
- 56년생 유혹이나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된다
- 68년생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
- 80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하라
- 92년생 돌아오는 대로 집어 두라
- 59년생 앞장 결실을 거두게 된다
- 71년생 혼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 83년생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자중하라
- 95년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낭패를 면한다

게시판

알림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담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문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3일)

48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60년생 남도 보고 뽕도 따니 집안 단속하라

72년생 귀하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

84년생 예상외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6년생 마음 비우고 집에서 하루 지내는 날

49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피하라

61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추진하라

73년생 자존심 버리고 앞으로 전진

85년생 비교하면 늦어지니 서둘러라

97년생 잘 살린다던 예상보다 결실이 따른다

52년생 부동산은 먼 안목을 보고 추진하라

64년생 돈소문 믿지 말고 주관을 갖자

76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

88년생 시에서 인정 받는다

55년생 막힌 일이 해결되는 하루

67년생 끈질긴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킨다

79년생 상사에게 칭찬받아 기분 좋은 날

91년생 포부 크게 가져야 큰 것을 이룬다

51년생 주변사람에게 카운슬링하지 말라

63년생 투자가 손대고 싶은 충동은 참아라

75년생 사고우려가 있으니 출장은 금물

87년생 배우자 이외의 남자 주의

54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라

66년생 오해하지 않도록 비르게 행동하라

78년생 영궤던 일이 풀려나간다

90년생 준비가 됐으면 걱정 없다

57년생 오랜 정고는 귀에게 불리하다

69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리라

81년생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 없다

93년생 사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